

“잼버리 파행 원인은 정부 준비부족”

민주 이원택 의원 “정부지원위 보고·심의 안건서 시설물 설치계획 ‘제각각’… 준비 부족단면 보여줘 컨트롤 타워 없어 초기 대응 실패 또한 파행 요인”

지난 8월, 국제적인 망신을 새 내한 금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여가부와 조직위의 준비부족과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한 미국과 영국의 조기퇴영으로 드러났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인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김제·부안)이 여성가족부 국정감사 자료를 검토한 결과, 여성가족부와 조직위원회의 준비 부족, 무능, 무대책과 대회 초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인한 초기 대응 실패가 잼버리 파행의 주된 원인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르면, 잼버리 대회 5일째인 지난 8월 5일, 맷하이드 영국 스카우트연맹 대표의 말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이 조기퇴영을 결정한 이유는 ‘열악한 위생과 음식, 폭염 의료서비스 문제 등’이었다.

지난 3월 3일 열린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위원장 한덕수)에서 심의 의결해 고시한 ‘시설 설치·이용 및 사후 활용계획’의 시설물 설치 갯수는 화장실 400동, 샤워실 400동, 급수대 400동, 의료실 150동이지만, 실제 설치된 갯수는 화장실 330동, 샤워실 330동, 급수대 125동, 의료실 11개소(잼버리 병원 1, 허브클라닉 5, 응급진료실 5개소)로 정부에서 고시한 숫자보다 턱없이 부족하게 설치돼 예정된 참가하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날, 제2차 정부지원위원회에서는 보고 안건과 심의 안건이 있었는데, 두 개의 안건에 시설물 설치계획이 각각 달랐다.

같은 날 회의한 회의의 자료마다 시설물 설치계획이 달라 정부의 무능과 무



개념에 의한 준비 부족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원택 민주당 의원은 작년에 폭염과 폭우대책, 해충방역과 감염 대책 등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다.

하지만 잼버리 대회는 문제없다며 태풍·폭우대책을 다 세워 놨다면 여가부 장관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

정부가 고시한 시설물 설치계획을 무시하고 턱없이 부족한 시설물 설치와 위생·의료시설은 미국과 영국의 조기퇴영의 이유가 됐다.

잼버리 대회에 대한 정부의 무능·무대책·무관심 속에서 컨트롤 타워 없이 우왕좌왕 하면서 대회 초기 대응 실패 또한 파행의 주된 요인이 됐다는 것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원택 의원은 “정부는 말로만 모든

대책 다 세워 놨다고 호언장담 하더니, 대회가 시작하자 우왕좌왕 했다”며 “정부의 준비부족, 무능과 무대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인한 현장 대응 실패가 잼버리 파행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정부가 고시한 시설물 설치계획대로만 시설물과 위생, 의료시설이 준비됐더라면 잼버리 파행은 막을 수 있었다”면서 “정부의 무관심과 준비부족으로 전세계 청소년들의 꿈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앞서 이원택 의원은 잼버리 파행이 전북도와 부안군의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은 터무니없는 가짜뉴스라며 정부의 무능과 준비 부족으로 파행된 잼버리를 전북도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정치적 술수라고 했다.

이 의원은 잼버리 운영과 재원조달 등 모든 권한은 여가부와 잼버리 조직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전북도는 조직위에 인력파견을 지원하는 등 행정지원 역할을 하며, 파행의 책임을 전부 다 뒤집어 쓰기에는 너무도 작은 권한이라고도 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전북이여, 가자! 국회로’

염영선 도의원, 새만금 예산 복원 염원 메시지 머리띠 두르고 전북역전마라톤대회 참가 7일 국회서 열리는 범도민 총결기 도민 참여 촉구

전북도의회 염영선 의원(정읍시 제2선거구)이 2일 ‘제35회 전북역전마라톤대회’에 정읍시 대표로 출전했다.

역전마라톤 대회는 전북지역 14개 시·군을 대표하는 건각들이 이를 갈며 도내 120km의 도로를 역주하는 대회로, 15개 소구간을 선수들이 이어 달리며 기록을 합산해 종합 순위를 결정하는 대회이다.

염영선 의원은 1일차 1구간 제3소구, 50세 이상 구간을 달렸는데 ‘가자~여의도!’라는 메시지가 새긴 머리띠를 둘러 눈길을 끌었다.

염 의원은 “11월 7일 국회에서 빼앗긴 새만금 예산과 180만 도민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500만 범



도민 총결기 대회가 열린다”며 “도민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여 전라북도의 결집된 힘을 보여줘야 한다”고 문구 선정 배경을 밝혔다.

염영선 의원은 20여 년 경력의 마라톤 애호가로 시대 정신과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대회에 참가해 눈길을 끌었다.

2004년 ‘국회타령’, 2017년 ‘정권교체’, 2018년 ‘종전선언’, 2019년 ‘검찰개혁’, 2022년 ‘전북특별자치도 연내통과’, 그리고 올해 ‘새만금잼버리 성공기원’, 지난 9월 제60회 전북도민체전에 ‘전북이 붐이냐’라는 메시지를 새긴 머리띠를 두르고 달린 바 있다.

/김재훈기자

군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47건 부의안건 의결 처리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259회 임시회를 지난달 29일부터 10일간의 일정으로 마감했다.

7일 열린 본회의에는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를 가결하여 군산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는 것에 모두가 힘을 모을 것을 다짐했다.

이번 임시회는 간담회를 실시했고 ‘군산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7건의 부의안건을 심의했다.

2일 열린 2차 본회의에서는 환경·농·감염자·우중산 의원의 5분 발언과, 서동환 의원의 시정질문, 김우민 의원이 발의한 성명서 가결이 있었다.

서동환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나운동 연립주택 사업계획 심의에 대해 심각하고 우려스러운 점들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질의했다. 이어, 김우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군산대학교 의과대학 신설 촉구’ 성명서를 가결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2일 군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군산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새만금 예산 확보 위해 관할권 주장 중단”

군산시의회, 브리핑 통해 제안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는 2일 새만금 예산확보를 위해 관할권 주장을 중단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시의회는 브리핑에서 “전북도의 중재 하에 군산과 김제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된 관할권 주장을 중단하고 새만금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과 수도권은 통합 열풍인데 전라북도 정치권은 도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비전은 없이, 군산·김제

를 필두로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만 여념이 없다”며 “이렇게도 전라북도의 정치력이 부족한지 말인가? 시민들은 전북의 미래를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새만금과 전북도가 단군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잼버리 파행으로 인해 새만금 SOC 예산이 대폭 삭감됐으며,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관할권 결정이 임박함에 따라 군산과 김제 간 관할권 분쟁이 점점 격화되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 및 관할권 분쟁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78%의 새만금

SOC 예산삭감으로 지방소멸 위험지역인 전라북도의 희망이 꺼져가고 있는 상황에도 끊임없이 군산과 김제의 관할권 다툼이 더욱 격렬해지고 있어 도민들의 우려섞인 원성이 높아져만 가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들은 “새만금이 정상화될 때까지, 전라북도의 중재 아래 한시적으로라도 군산과 김제는 모든 새만금의 관할권 주장을 내려놓고, 오로지 새만금 성공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협력할 것을 제안하고자 한다”고 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도의회 행자위, 본예산 심사 대비 신규사업 보고회

전북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이재)는 2일 2024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대비하기 위해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에서 행정자치위원들은 소관 실·국장으로부터 2024년 신규사업 및 주요 예산 편성현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지 세심하게 검토하는 시

간을 가졌다.

김이재 행정자치위원장은 “내년 지방교부세 및 지방세 수입 감소로 인해 세입 전망은 어두운 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미래성장동력 확보 등 예산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한 톨이라도 낭비되는 예산은 없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철저히 심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재훈기자

도의회 환복위, 정례회 대비 연찬회 개최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위원장 이병철)는 2일 환경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찬회는 오는 10일부터 진행되는 환복위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대비하여 감사 방향과 예산안 심사자료의 사전 분석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연찬회에서 환경복지위원들은 부서별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분야별 쟁점사항 등을 분석하며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토론을 실시했다.

아울러 2024년도 실국별 신규사업 및 주요예산 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고향사랑 기부제

우리 고향에 힘이 되는 법-기부를 통한 나눔입니다
당신의 작은 기부도 농촌에는 큰 힘이 되니까
고향에 기부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선물로 받으세요!

기부자

지자체

농업인

세액공제 / 담배료 제공

기부

고향사랑

담배료 구입

농축산물 공급

기부액의 30% 상당 담배료 지급
지역 농축산물 및 지역 특산물 등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
기부금액 10만원 이하: 100%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금을 통한 지역 균형 발전 도모
지방재정 보완 및 지역경제 활성화

고향사랑기부 신청 방법

> 시행: 2023년 1월 1일

- 온라인: 정부 종합정보시스템[고향사랑 e음]
- 오프라인: 농협은행·농협

*기부 한도액 1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기부 불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응원합니다

농협중앙회남원시지부 지부장 오영석 / 남원농협 조합장 박기열 / 춘향골농협 조합장 김영규 / 지리산농협 조합장 정대환
운봉농협 조합장 오용담 / 남원원협 조합장 김용현 / 전북지리산낙협 조합장 김재욱 / 남원축협 조합장 한경석